



금융감독원

# **보 도 자 료**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 행복하게

보도	2024.12.10.(화) 11:30	배포	2024.12.10.(화)		
담당부서	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 진	(02-3145-8170)
		담당자	부국장	김정훈	(02-3145-8180)

## **금감원, 글로벌 IB 애널리스트 간담회 개최**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.10일(화) 오전 글로벌 IB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·문의 사항을 진솔하게 청취하고, 이에 대해 답하는 자리를 가졌다.

☑ 일 시 : '24. 12. 10.(화) 10:00 ~ 11:00

☑ 참석자 : 금융감독원장, 부원장보 기획·전략, 금융투자, 은행·자본시장·보험 등 주요 부서장  
모건스탠리, UBS, 씨티, BNP파리바, JP모건, HSBC

- 애널리스트들은 美 관세정책, 반도체 업황부진 등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.
- 특히,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, 상법·자본시장법 개정, 밸류업 프로그램,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가 지속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지적하였다.
- 이에, 이복현 원장은 12.5일부터 범정부차원의 경제금융 상황 점검 TF가 가동되어 소비·투자·수출·고용·물가 등 경기·민생 전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,
- 경제분야 문제해결은 정치문제와 분리되어 있는 만큼, 재정·통화·산업·금융정책간 적절한 조합(Policy Mix)에 따른 시너지를 통하여 경기 하방리스크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- 또한, 금투세 폐지나 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주친화정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,
- 규제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도 적극 발굴·개선할 것임을 강조하였다.

- ① **(금투세)** 여·야 모두 이견이 없는 이슈이고, 투자심리 안정에  
긴요한 법안이어서 적시에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
- ② **(기업 지배구조)** 국내외 투자자가 강하게 요구하는 주주보호  
강화 조치는 야권에서도 추진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 
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 추진
- ③ **(밸류업)** 주당순이익 증가, 배당 확대 등의 기업가치제고 노력은  
정치환경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되어야 할 상장회사의 당연한 명제이며,  
우수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, 게을리하는 기업은 불이익을  
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
- ④ **(공매도)**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전산화 방안에 대한 법제화 작업과  
전산시스템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, '25.3월까지 마무리하고  
공매도를 재개할 예정
- ⑤ **(시장안정조치)** 단기에 그치지 않고,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 
준비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이  
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태세 구비

□ 마지막으로, 이복현 원장은 최근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 
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최근 정치상황이 우리 경제·금융에 미칠  
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.

- 아울러,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글로벌 IB 애널리스트들에게 외국인  
투자자들이 견고한 우리 경제 펀더멘털을 믿고, 원래 계획했던  
투자액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.